

윤리와 사상 정답

1	③	2	③	3	④	4	⑤	5	③
6	⑤	7	②	8	④	9	②	10	④
11	①	12	②	13	①	14	①	15	④
16	⑤	17	⑤	18	④	19	②	20	③

해설

1. [출제의도] 윤리 사상의 필요성 이해하기

제시문의 필자는 인공 지능과 인간의 조화로움 공존을 위해 인간의 존재 의미에 대한 윤리적 성찰과 인간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출제의도] 석가모니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연기설(緣起說)을 주장하였다. 그는 만물이 끊임없이 생멸변화한다고 보았고, 인연에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집착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만물이 무상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다.

3. [출제의도] 흄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흄이다. 흄은 행위에 대한 선악의 구별은 감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인 동기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회적 유용성을 증진하는 행위는 도덕성의 기초인 공감 능력을 통해 시인(是認)의 정서를 일으킨다고 보았다.

4. [출제의도] 위정척사 사상과 동학사상 비교하기

같은 위정척사 사상가 이항로, 을은 동학사상가 최재우이다. 위정척사 사상은 유교적 가치 체계와 질서를 지키고 서양 문물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동학에서는 모든 사람은 한울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라고 보았으며, 기존의 차별적인 신분 질서에 반대하였다. 이들은 모두 서양 종교의 수용과 확산에 반대하였다.

5. [출제의도]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프로타고라스, 을은 소크라테스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보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진리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한편 소크라테스는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였으며,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영혼을 수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6. [출제의도] 이황과 이이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이황, 을은 이이다. 이황은 이와 기는 서로 발할 수 있다는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주장하였다. 한편 이이는 발하는 것은 오직 기이고 이는 발하는 까닭일 뿐이라는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道說)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이라고 보았다.

7. [출제의도] 공자와 노자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공자, 을은 노자이다. 공자는 법률보다는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교화해야 사회 질서를 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克己復禮]이 인(仁)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노자는 예와 같은 인위적인 도덕규범과 제도로 인해 사회 혼란이 발생하였다고 보았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소박하게 살 것을 주장하였다.

8. [출제의도] 에피쿠로스학과와 스토아학파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에피쿠로스, 을은 에픽테토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적극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충족하여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평온한 상태에 이를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스토아학파에서는 인간의 본성이자 신과 자연의 본성인 이성을 따르므로써 어떠한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는 부동심(不動心)의 경지에 이를 것을 주장하였다.

9. [출제의도] 벤담과 밀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벤담, 을은 밀이다.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였으며, 모든 쾌락은 오직 양적 차이만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밀은 쾌락의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단순한 감각적 쾌락보다 고상한 쾌락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들은 모두 인간은 쾌락과 고통에 의해 지배받는 존재라고 보았으며,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10. [출제의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지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행위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해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 자체로 나쁜 감정이나 행동에는 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11. [출제의도] 맹자와 순자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성선설을 바탕으로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사단을 확충하는 수양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하면서 성인(聖人)이 제정한 예(禮)를 통해 악한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12. [출제의도] 혜능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혜능이다. 혜능은 자신의 본성과 부처의 본성이 본래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선(禪)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직관한다면 경전 공부를 거치지 않고도 단박에 깨달을[頓悟] 수 있다고 보았다.

13. [출제의도] 칸트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이 아니라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았다. 또한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며,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결과가 아니라 동기라고 보았다.

14. [출제의도] 정약용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인간만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기호(嗜好)를 본성으로 타고났으며, 인간은 하늘로부터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단(四端)을 확충함으로써 사덕(四德)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15. [출제의도] 아퀴나스와 스피노자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아퀴나스, 을은 스피노자이다.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주장하였고, 신의 존재를 이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완전한 행복은 신의 은총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될 때 가능하다고 보았고,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스피노자는 신은 곧 자연이며, 유일한 실체라고 보았다. 또한 인간이 우주의 필연적인 인과 법칙과 질서를 인식함으로써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6. [출제의도] 장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이 평등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시비선악을 분별하는 상대적 인식과 외물(外物)에 얽매이는 삶에서 벗어나 자연의 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였다.

17. [출제의도] 왕수인과 주희의 사상 비교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왕수인이고, '어떤 사람'은 주희이다. 왕수인은 인간의 마음이 곧 이치[心即理]라고 보았고, 마음 밖에 이치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주희는 마음과 마음 밖의 모든 사물에 이치가 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모두 천리를 보존하고 사욕은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18. [출제의도] 원효와 지눌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원효, 을은 지눌이다. 원효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모든 이원적 대립을 초월하여 화쟁(和諍)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지눌은 단박에 깨달은 뒤에도 습기(習氣)를 점진적으로 소멸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았으며,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수행인 정혜쌍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모두 불교 종파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화롭게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19. [출제의도] 베이컨의 사상 이해하기

그림의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베이컨이다. 베이컨은 참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관찰과 실험을 중시하는 참된 귀납법을 강조하였고, 자연 과학적 지식을 통해 자연을 지배하고 인간의 생활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다.

20. [출제의도] 플라톤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가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절제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고, 각자에게 걸맞은 덕을 갖추어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